

도/서/관/탐/방

IT 강자답게 최첨단시설과 세련된 분위기로 이용자를 매료시키는

## KT연구센터 자료실 (유니콘: UNICORN)

‘IT 강국 Korea’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한 IT강국이다. 지난 2006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Wibro, 알버트 휴보 로봇, DMB 등 첨단 IT제품들을 시현함으로써 세계 정상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었다. 또한 5월에 열린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엘 고어는 “한국은 인류에게 인쇄(활자)와 디지털이라는 2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하며 한국의 IT 수준을 극찬했다. 이렇듯 IT는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고, IT를 통해 어제와 오늘을 소통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면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KT연구센터 자료실 방문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우면동 한적한 곳에 위치한 KT연구센터 내 자료실. 협회 사무실에서 가까웠기에 다른 곳을 방문할 때 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웠다. KT연구센터에 도착해 1층 입구에 들어서니 IT기술 연구센터답게 긴장감이 흐르면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다. 우리는 1층 로비에서 KT연구센터 자료실 담당인 김솔미 사서에

### 1 자료실 입구



게 연락을 취하고 기다렸다. 조금 기다리니 멀리서 김 사서가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눈인사를 건넨다. 김 사서를 따라 우리는 건물 1층 원편에 위치한 자료실로 들어섰다.

IT분야의 전문 자료실이라 그런지 지금까지 방문했었던 일반자료실의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딱딱한 나무서가 대신 하얀 플라스틱 서가가 눈에 띄었고, 형형색색의 의자와 책상 등도 참신해 보였다. 물론 이런 시설들은 2005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자료실이라기보다는 마치 삼청동에 있는 북카페나 요즘은 이동통신사들이 만들어놓은 고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었다.

자료실이 세련되고 신선하다는 생각을 하며 잠시 훑어보고 우선은 자료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자료실 설립 배경

KT연구센터 자료실(UNICORN)은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산업 및 R&D 관련 고부가가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 연구원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1984년 오픈했다. 목동에서 우면동으로 이사 오면서 1991년 10월 현재 위치에 약 660㎡ 규모로 자리 잡았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 자료실이었다. 그동안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굳건히 자료실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경영자들이 자료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애쓴 사서들과 실제 자료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한 경영자들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종 신기술도입과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자료실 담당직원들이 많이 줄어 현재는 김솔미 사서 외 직원 2명이 자료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 끝에 2005년 10월 전격적인 자료실 리모델링을 추진한 결과 유니콘(UNICORN: ubiquitous and information corners)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② 자료실 입구





- ③ Repository zone
- ④ Learning and CoP zone
- ⑤ Comfort zone

Unicon

## 자료실 구성 및 운영현황

자료실은 크게 Repository zone, Learning and CoP zone, Comfort zone 3가지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Repository zone은 최신 자료 및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를 서가 앞면에 배치하기 위한 compact shelving, 컨설팅보고서 및 사내보고서의 캐비닛 보관을 위한 security shelving, 디지털 정보를 비치하기 위한 digital shelving, 과년도 자료 및 이용횟수가 낮은 자료를 별도서가에 배치하거나 모빌랙을 이용해 보관하기 위한 storage shelving 총 4가지 shelv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Learning zone은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공간으로 Language Learning Center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CoP(Community of Practice) zone은 사내모임방 성격을 띠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형 및 폐쇄형으로 구성하였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을 때 2개 부서가 모임을 갖고 있었다. 꽤 진지하게 토론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Comfort zone은 개방형 휴게공간으로 점심시간이나 업무의 시간에 직원들이 활용하는 곳이다. Display Book 및 카페공간으로 안락하게 구성되었으며 잡지 및 자료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부분적인 BGM(Back Ground Music)을 설정했으며 숲에 온 느낌이 들도록 투명하고 신선한 초록빛 풀과 꽃을 심어두기도 했다. 세심한 인테리어 돋보이는 산뜻한 공간이다.



6 직원들(왼쪽부터 임한복님, 김솔미 책임, 임성희 선임, 김영일 상무, 이인섭 수석)  
7 라온정보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소장자료는 크게 단행본, 회의록, 보고서, 규격, 멀티미디어자료로 구분된다. 단행본, 회의록, 규격자료는 미국 의회도서관분류법(LCC)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고서나 멀티미디어자료는 자체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

장서수는 도서 등 26,029권과 제본정기간행물 11,649권으로 총 37,678권이다. 종류별로는 단행본(국내외) 9,741권, 회의록 5,746권, 보고서 8,091권, 규격 552권, 멀티미디어자료(CD-ROM, DVD) 1,899종이다. 연구센터 자료실답게 회의록과 보고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자료실은 무인대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내직원 약 800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중 실질적인 이용자는 하루 30~40명 정도이지만 자료실 리모델링 후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료실에서 각종 회의나 모임을 하는 비중도 점점 늘고 있다.

## 라온정보빌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정보서비스 도우미 제도 시행

정보서비스는 주로 사내에서만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최근에는 정보서비스 도우미 제도(push 서비스)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라온정보빌(즐거운 정보마을))는 What's New, 소장문헌검색, 정기간행물, 해외시장전략정보, 디지털정보원, Privatopia(my library같은 기능) 및 정보이용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What's new'는 자료실내 신규 소식을 알리는 공지사항, 이용자들이 관심주제에 대한 기사가 있을 경우 선정해서 제공하는 특집기사, 한 주간에 입수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신착정보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문헌검색'은 사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사내보고서, 회의록, 규격, 멀티미디어자료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정기간행물' 메뉴에서는 국내, 구미, 일본정기간행물에 대한 e-journal 및 paper journal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검색이 가능하다. '해외시장전략정보'는 주요 해외시장 전문조사업체에서 발간하는 정보로 특정주제에 대해 1년 동안 수회 리포트 발간 및 정보서비스, 뉴스레터 등을 볼 수 있는 연간서비스 및 시장전략보고서의 검색과 원문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정보원'은 웹DB 및 전자저널, 뉴스 및 동향정보를 제공한다. 'Privatopia'는 다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my library 기능으로

도서관입신청, 비소장원문복사신청, 대출/예약정보조회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2003년부터 시행된 정보서비스 도우미 제도는 회사 내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기술정보를 제공, 연구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추구 행태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push 서비스이다. 크게 글로벌 전략정보서비스, 정기간행물 목차서비스, 월간 정보동향으로 구성, 서비스 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자료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한다.

## 자료실의 특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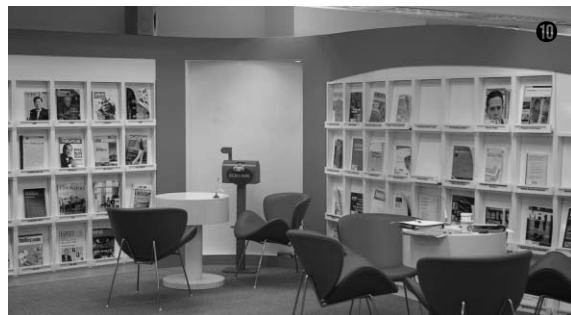
자료실에서는 매월 1회 Fresh-cafe day라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서경영’의 일환으로서, 독서와 영화감상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창의력 증진 및 재충전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연구센터 내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한다. 행사날짜(대부분 월요일)가 정해지면 각 부서별로 시간대를 다르게 모임을 갖기도 하고 많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한다. 이날의 주요행사 프로그램은 임원추천도서 전시회, 소장도서검색대회, 독서퀴즈대회, 당일 대출행운번호시상, 테마도서비치, 베스트셀러 비치, 보드게임 배치, DVD 영화상영,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Echo-box(의견수렴함) 운영 등이다.

Fresh-cafe day를 통해 임직원들은 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책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도 해 조직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자료실이 속해있는 신사업부문에서는 ‘10분간의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내 홈페이지에서 추천도서 e-book을 제공하고 주간 단위로 직원들이 한 칼럼씩 읽는다. 읽은 칼럼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 서로의 느낌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8 Fresh-cafe day  
9 Fresh-cafe day  
10 Echo-box  
(의견수렴함)



## 향후 도서관 운영 계획

자료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운영계획을 세웠다. 먼저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도서관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 자료실 내 여러 공간적 기능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라인 공간은 Library 2.0 서비스를 위한 실천단계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아울러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연구과제별 맞춤서비스)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나오면서

기업에 속해있는 전문도서관은 아쉽게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소위 One Person Library라고 해서 한 명의 사서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IMF 시절에는 적지 않은 자료실이 제대로 대응도 못해보고 우선적으로 폐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이기에 자료실 또한 성과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경영진들의 생각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KT연구센터 자료실처럼 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점점 더 좋은 자료실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예도 많이 있다. 이는 물론 경영진의 자료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도 했겠지만 자료실을 꾸려나가는 직원들의 태도,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료실의 일차적인 기능은 좋은 장서를 발빠르게, 많이 구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료실을 이용하고, 이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KT연구센터 자료실(UNICORN)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빠르고, 편리하며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생동감 있고 희망적인 전문도서관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IT 강국 KOREA' 를 선도하는 KT연구센터의 자료실로서 IT분야 자료실 중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



11 무인대출대에서 책을 보고있는 이용자  
12 자료실 전경